

#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촌거잡제 2수

보슬비 갑자기 개이더니만  
복사꽃 새로 막 피어났구나.  
봄바람 공연히 심술을 부려  
제일 높은 가지를 붙어 꺾누나.

## 村居雜題 二首

微雨乍晴後(미우사청후)  
小桃初發時(소도초발시)  
東風強作意(동풍강작의)  
吹折最高枝(취절최고지)

새벽안개 속에서 사립을 열고  
깊신 신고 아침 햇살 밟고 가누나.  
밤사이애 산비가 개이더니만  
봄 고사리 어느새 꺾을 만해라.

柴扉啓曙煙(시비계서연)  
芒屨踏朝日(망각담조일)  
夜來山雨晴(야래산우청)  
春蕨已堪折(춘활이감절)



## 권용섭 여영난의 멈춰진 10년 전(展)

전시기간 5월 2~5일(4일간)까지

“이민생활에 힘겨울 수록 애착이 몸에 베이죠. 그리운 전지들과 우애를 나누고 싶어 대구에서 전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5월 2일-5일까지 대구 CU갤러리에서 ‘여영난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전시회가 열린다.

권용섭(여영난, 딸 청실·진실)과 함께 대구를 떠나 15여년이 된 재미동포이다. 이후 이들 가족은 ‘아름다운 독도’란 테마로 14여 년째 해외를 떠 돈 지구촌기행하며 화폭에 담은 특별한 가족이기도 하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 서른 도시와 오지를 편란한 발걸음들을 그들만의 예술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2000년 한국 경찰청에서 “아름다운 독도그림전”을 시작하여 필리핀, 유럽, 남미의 페루, 아이티 등 20여 개국에 퍼포먼스와 전시를 해 왔다.

독도를 테마로 평양과 일본인학교에 까지 이념의 철벽을 넘은 ‘Soul of Korea’ 붓으로 외쳐 왔다.

독도화가로 잘 알려진 권용섭씨는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국회독도초대작가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경상북도 해외 독도자문위원으로 미국 한인축제 등 행사에

다수 참여해 누구보다 많은 한류활동을 하는 화가이다.

부인 여영난은 이번 전시는 신도불이를 저버린 정신적 공황을 채우기 위해 모교(효성가톨릭대학)들과 친지가 있는 대구에서 한다고 했다.

가정과 예술과 애국이 일치되는 여정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는 독도를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스케치하여 볼 수 있는 세종대왕바위, 천지암, 한반도지도, 삼살개 바위 등을 찾아 낸 독도 그림지도를 만들었다.

한국의 비경 독도에서 얻은 색과 선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낯 서른 해의 풍경과도 하모니를 이루려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번 대구전에는 남편 권용섭, 딸 청실, 진실양도 10여점 출품하여 모두 40여점을 선보인다. 또 한 이들의 가족의 그림에는 독도는 한반도를 함축한 비경으로 이를 작품으로 세계에 문화적으로 알리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 예술과 독도는 한민족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케치플레이는 ‘온 몸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민족 만이 내 땅이라 주장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도의 민간문화적 실효적



석화-여영난작

지배를 위해 독도의 등기를 개인 소유화하여 주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부탁하기도 했다.

국제법에 이기기 위해서 국내법을 고치는 것은 영토보존의 지혜라고 덧붙인다. 권용섭·여영난씨 가족은 현재 미국 할리우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는 독도홍보관 GaiaGallery와 아프리카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인 딸들은 산타모니카와 시카고에서 각각 미술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부부가 일시 귀국하여 5월12일 미국으로 돌아 간다.

문의: (미국)1-310-938-7450 Email-dongkok@yahoo.co.kr

## ■ 역사기행

###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내려오는 전설(傳說)

■ 향촌 권오창 (본원 전문위원)



남한산성은(고460m)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분지형태로 우뚝 솟아 있다.

성의 둘레는 약2Km에 달하고 이 산성의 축성은 백제의 시조은조왕이 즉위13년에 축성하고 남한산성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기록에 의한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의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차지 할려고 하였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남한산성에서 북쪽은 한강을 경계로 하여 남산과 북한산과 중랑천변과 한강변의 아차산이 보이고 북동쪽으로는 이성산성 풍납토성이 감싸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한강이 큰 천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남쪽과 서쪽은 아산과 평야지대이며 개활지임으로 군사적으로는 만약 적이 쳐들어 올 때에는 적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방에 용이한 지세이다.

이곳에서는 광역지역으로는 양주 양평 용인 고양 부천 인천 서울지역까지 조망된다.

이러한 지세 여건으로 이 지역을 지배한 국가세력에 의하여 성의 주인이 바뀌고 예부터 축성과 축조가 변경 또는 보완되어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의 둘레에는 4개문과 8개의 암문 이 있다. 성내에는 관아와 행궁과 창고 등이 있고 군사시설과 연무관이 있다.

1624년(인조2년)에는 이 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고 이 성을 인조 2년에 축조할 때에 축성 총책임자는 이서(李曙)이고 성의 동쪽과 남쪽의 축조책임은 이회장군이고 서쪽과 북쪽의 성의 축조는 승병의 책임으로 축조하였다.

그런데 동남성축조는 기일내 완공하지 못하자 이것은 이회가 공사비를 탕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상소하여 이회는 사형에 처하여졌다. 사실은 이회가 맡은 축성지는 지세가 험준하여 축성이 늦어졌던 것이다.

이회는 수어장대앞 참수형을 당하는 형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죽는 순간에 매 한마리가 날아 올 것이다. 만약 매가 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매가 오면 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였다. 지금도 매가 날아온 매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매발자욱이 있다. 이회장군의 부인은 이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하여 강물에 투신자살 하였다.

그후 몇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남한산성 서장대 서편에 이회장군을 제형하는 사당인 창량당이 세워졌다.

전술한바와 같이 성의 서쪽은 승병들이 축성의 책임을 맡았다. 승병의 숙식과 훈련을 위하여 건립한 성으로 동문안의 북쪽에 장경사(長慶寺)가 세워졌는데 이 절은 온전히 남아있는 남한산성의 유일한 사찰이다.

장경사는 금단선사가 가엾게 죽은 모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전설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 인생의 4계절(1)

자연계에 4계절이 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4계절이 있다. 흔히 계절의 상징을 색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봄은 푸른 빛깔, 여름은 붉은 빛깔, 가을은 흰 빛깔, 겨울은 검은 빛깔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봄을 청춘(靑春), 여름을 주하(朱夏), 가을을 백추(白秋), 겨울을 현동(玄冬)이라고도 한다.

자연계의 4계절은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는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계절의 아름다움이 희박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계절에 따라 청과물의 생산도 달라지게 마련인데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는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나 재배되었던 청과물을 먹게 되니 말이다.

많은 것이 인공적으로 수식(修飾)되고, 온도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까닭에 현대인들은 계절의 변동에 대한 감정 즉 계절감에 둔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계절감에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계절은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특징을

각각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4계절을 분류한다. 자칭 우강식 분류(又岡式 分類)는 다음과 같다.

봄:출생 후 30세까지의 기간, 영·유·소년기를 포함한다. 여름:31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 장년기(壯年期)가 이에 해당한다.

가을:61세부터 80세까지의 기간. 숙년기(熟年期)가 이에 해당한다. ‘숙년기’라는 단어는 내 자신이 만들었으며, 공식 용어는 아니다.

겨울:81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70세를 고희(古稀)로 하는 관습은 90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자연계와 인생이 다른 점은 자연계의 4계절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4계절은 한 번 뿐이라는 점이다. 나는 봄을 좋아하고 따라서 인생의 청춘을 그리워 하지만 그렇다고 봄과 청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차례 지적했다.

나는 2011년의 화두를 “언제나 청춘을 꿈꾸자”라고 정할 정도로 봄과 청춘



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늙었어도 젊음을 꿈꾸는 희망과 여유를 가

지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자연계의 4계절에 각각 고유의 아름다움과 특징이 있었듯이 인생의 4계절에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특징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한 나위가 없지만, 그래도 인생의 4계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생의 봄 :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부터 교육을 받고 청년시대를 거치는 기간을 청춘기라고 부른다. 물론 이렇지 못하고 조실부모를 당하거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정의는 그저 일반적으로 운위되는 것을 종합한 것뿐이다.

괴테 (Jonann Wolfgang von Goethe:1749-1932)는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꽃은 마음의 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꽃은 봄철에 특히 많이 피는 것이니 괴테의 말은 청춘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음호에 계속)

## 색다른 비빔밥 만드는 법 재연

### 부호장공파 일원정에서

지난 4월 3일 오전 11시 안동시 대화동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정자인 일원정(一源亭)에서 안동권문의 머느리인 조선행(熊先杏)씨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색다른 비빔밥 만드는 법을 3시간에 걸쳐 재연하였다. 그는 부호장공파로 현재 안동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영(權五鼎)씨의 부인이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비빔밥은 각종 나물을 볶아서 먹기 때문에 나물 가운데 질긴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조(曹)씨가 만드는 비빔밥은 전연 그런 것이 없다. 그가 비빔밥 만드는 방법을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무,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말린 토란과 가지 등의

재료를 한꺼번에 솥에 넣어서 집 간장으로 간을 맞춘 후에 1시간가량 푹 끓인다. 그러면 나물이 익어서 연하고 먹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맛이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콩고기를 칼로 다진 후 고추장에 섞어서 콩-장(醬)을 만들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고 한다.

그는 27세 때에 안동권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비빔밥과 콩-장 만드는 법을 시어머니로부터 전수(傳受)받아 30여 년이 되도록 제사나 명절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이날 비빔밥을 먹은 부호장공파 권병균(權炳均) 회장과 임원들은 “보통 시중에서 파는 비빔밥보다 나물이 연하고 담



색다른 비빔밥의 변천 모습

백하며 콩-장을 함께 넣어 비벼서 먹는 맛이 정말 최고”라며 모두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일 그가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한 내용을 오는 4월 20일 오전 11시 40분 매일경제(MBN)에 게재되고, <맛있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TV에도 방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부장 권영건)

## 조선왕조의 절기풍속

### ■ 기로회장 권정택

(지난호에 이어) ▶한식(寒食) 한식은 동지에서 105일째이며 이날 성묘를 한다. 민간에서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네 명절에 제사를 올리고, 궁중에서는 여기에도 동지를 더하여 오절사(五節祀)라 한다.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 민간에서는 이날을 전후하여 송망, 송떡을 해 먹고 조상의 무덤에 때를 입혔다.

▶단오(端午) 단오날은 수리(戌衣), 수릿날,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 등으로 불린다. 이날은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여 부녀자들이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씻고, 창포뿌리를 뽕죽하게 썰어 다홍 찹을 해 양쪽 귀에 꽂기도 하고 생머리에 꽂아 모양을 냈다. 또 비녀를 만들어 주사루 수복(壽福)의 글자를 새겨 꽂기도 하였다. 조경에서는 지방 고을 수령들이 허탄한 부채를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 이를 단오선(端午扇)이라 하였다. 내의원에서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금박으로 싸서 임금님께 바치면 이를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 이것을 오색실로 붙여서 매어 차고 다니면서 액막이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내의원에서는 제오탕을 만들어 임금께 진상하면 이를 연로한 공신들이 모인 기로소(耆老所)로 하사하였다. 궁중의 단오절식은 증편, 어알탕, 준치만두, 영두화채, 제호 탕, 생실과, 수리취떡 등이다. 수리취를 삶아서 짤을 편을 쥘 때 함께 쳐서 수레바퀴 문양 떡살을 박아서 차륜병

(車輪餅)이라고도 하고, 또는 썩을 삶아서 넣기도 하여 애엽고 라고도 한다.

▶유두천신(頭頭薦新) 유두날 아침에는 수단, 건단, 유두면 등과 수박, 참외 등의 햇과일과 피, 기장, 조, 벼를 조상께 천신한다. 궁중에서는 종묘에 천신한다. 수수 피 나락을 가묘에 바치는 것을 천곡(薦穀)이라 하였다. 보리로 단술을 빚어서 바치기도 한다. 유두절식은 편수, 봉선화화전, 감국화전, 색 비름 화전, 맨드라미화전, 밀쌈, 구절판, 갯국 탕, 어채, 복분자(覆盆子, 산딸기)화채, 떡수단, 보리수단, 참외, 상화병(霜花餅, 기주떡) 등이다.

▶사빙(賜水) 사빙은 궁중에서 옛날부터 유월 중순경에 기로소와 각 관아에 얼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빙고는 동빙고와 서빙고가 있었다. 동빙고는 국가의 제사에 사용되는 얼음을 저장하였고, 서빙고는 한강하류 둔지 산기슭에 있는데, 이곳 얼음은 수리상에서 쓰이고, 또 백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복팔죽 삼복에는 팔죽을 동지 날에 쑤지만 궁중에서는 동지와 복(伏) 즉 초, 중, 말복에 번 번히 쑤어서 온 궁중이 다 먹었다고 한다. 한말에 쓰던 술이 지금 창덕궁 대조전 앞 월대 전면에 장식처럼 진열해 놓은 청동 ‘부 견주’였다. 이는 화로와 비슷한데 다만 양편에 손잡이 고리가 있고, 대신 발이 없다.

▶칠석(七夕) 칠석날의 절식은 밀전병, 증편, 육계장, 개전, 잉어구이, 잉어회, 복숭아화채, 오이소속매기, 오이국두기, 등이다.

▶하절(夏節)사식 궁중에서는 정월에 남겨둔 흰떡을 다시 불려서 떡국을 끓여먹는다. 더위를 이긴다고 겨울 음식을 여름에 먹는다.

▶한가위(秋夕, 嘉俳) 추석은 가배 또는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가위의 절식은 오려 송편, 토란 탕, 밤단자, 갓은 나물, 가리 찜, 배화채와 밤, 대추, 사과, 배, 감 등의 햇과일이다.

▶중양절(重陽節) 중양절은 양수(陽數)가 겹치고, 구(九)가 겹친 날로 명절로 삼는다. 삼진날에 돌아온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떠나는 날이다. 중양절의 절식은 감국전, 밤단자, 유자화채, 생실과 등이다. 유자화채는 배, 유자를 썰어 꿀물에 넣고 석류와 잣을 띄운 아주 향기 좋은 화채이다.

▶추절(秋節)사식 추수가 한창이라 햇곡식이 풍성하니 인심도 후한 계절이다. 몰호박떡, 무시루떡, 밤단자, 대추인절미 등이 떡과 토란국, 토란단자 등을 만들고, 살전 황계(黃鷄)로 백숙을 한다.

▶타락죽(脫酪粥) 궁중에서는 시월 초하루부터 정월에 이르기까지 내의원에서 타락죽인 우유죽을 만들어 진상한다. 낙죽은 쌀을 갈아서 우유를 부어서 끓인 보양이 되는 죽이다. 우유는 서양문물이 들어온 이후에 식용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삼국시대부터 이 땅에서 우유를 음용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상설기관으로 우유소(牛乳所)가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타락색(脫酪色)으로 바뀌었으며 지금의 동대문에서 동소문엔 걸쳐는 동산일대를 타락산이라 하고 약칭하여 낙산(麓山)이라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달의 시**

## 오솔길 25

깊은 산, 벼랑 마다없고  
왜 혼자만 가나?  
너희들 인생처럼, 가다보면  
또 다른 외로운 길 삼거리에서 만나  
바람 불어일지는 고단한 삶의  
계곡 건너고개 넘어희망되어가지

권경업 詩人  
62가 안동·별장공파, 36세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

(다음호에 계속)